

## 맞춤형 수산물 수출전략이면 FTA도 기회!

우리나라 수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 가공식품기업의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수출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일 부산 서구 암남동 부산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FTA 대응,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산업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4시간동안 진행됐다.

국립수산과학원 토론회 개최  
“정보 부족·수출국 편중 한계  
국가별 마케팅 다변화해야“

신라대 손재학 교수는 ‘수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요국가의 수산식품 수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국내 수산물 수출 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가별 수산물 시장정보 부족, 수출국가의 편중화, 수산물 수출기반 취약, 해외유통 장악력 부족, 신상품 개발 및 지원한계, 정부지원의 비탄력성 등으로 꼽았다.

손 교수는 수산물 수출 전략으로 크게 △맞춤형 수출 전략 △수산 가공식품기업의 육성 △해외마케팅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특히 수산 가공식품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국내 소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는 제품에 따른 조합을 구성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생산, 가공, 수출업체가 결집된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손 교수는 또 해외마케팅의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수산펀드 등을 통해 해외수산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준석 수산과학원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는 중국·이슬람국가 등 수출 상대국별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고부가가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기능성 수산식품 개발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강 원장은 “국내 수산업의 체질이 개선된다면 오히려 FTA 체제에서의 낮은 관세율은 국내 수산가공식품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부산일보 (2015-09-10)